

## 데이비드 C. 뱅크스 교육감으로부터의 뉴스레터



견학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멋진 뉴욕시를 교실로 삼을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뉴욕 시민 여러분께,

저는 지난 화요일 브루클린에 있는 PS 46 의 2, 3 학년 학생들과 함께 센트럴 파크에 소재한 우리의 놀라운 [미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즐겁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동안 오션 라이프 홀(Hall of Ocean Life)에서 커다란 대왕고래와 어울리고 큰바다사자, 점박이 바다표범, 그리고 다이빙 새에 관한 전시를 관람하였는데, 2 학년 학생들이 "공중을 날고 물에서 수영하는 새들이 있어요" 라고 신나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아 아이들이 이 전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 덕에 우리 교실과 아이들의 학습이 뉴욕시의 무궁무진함 속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잃어버린 많은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학 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PS 46 학교장 Adam Braverman 과 뉴욕시 전역의 학교 리더들 및 교육자들은 다시 학교 문을 열고 있고 적극적인 탐구와 발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학습 정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장으로 지내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책상에서 벗어나 문화, 과학, 역사, 예술의 눈부신 축소 모형인 뉴욕시 안으로 들어가 학습을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견학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들이 다시 견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멋진 일이며 또한 [얼번 어드벤처](#)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학교와 가정들이 미국 자연사 박물관 등의 많은 문화기관이 주는 혜택을 쉽게 누리고, 그로 인하여 이 뉴욕시가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에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점은 매우 행운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멋진 견학을 하는 기회를 갖는 동안 학생들의 얼굴이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뉴욕시의 영감을 주는 힘과 아이들과 함께한 눈부신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아이들과 교육에 헌신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 공립 학교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명절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높이 날아 봅시다.

데이비드 C.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

---

더 이상 PS+You 이메일 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수신을 거부](#) 하십시오.